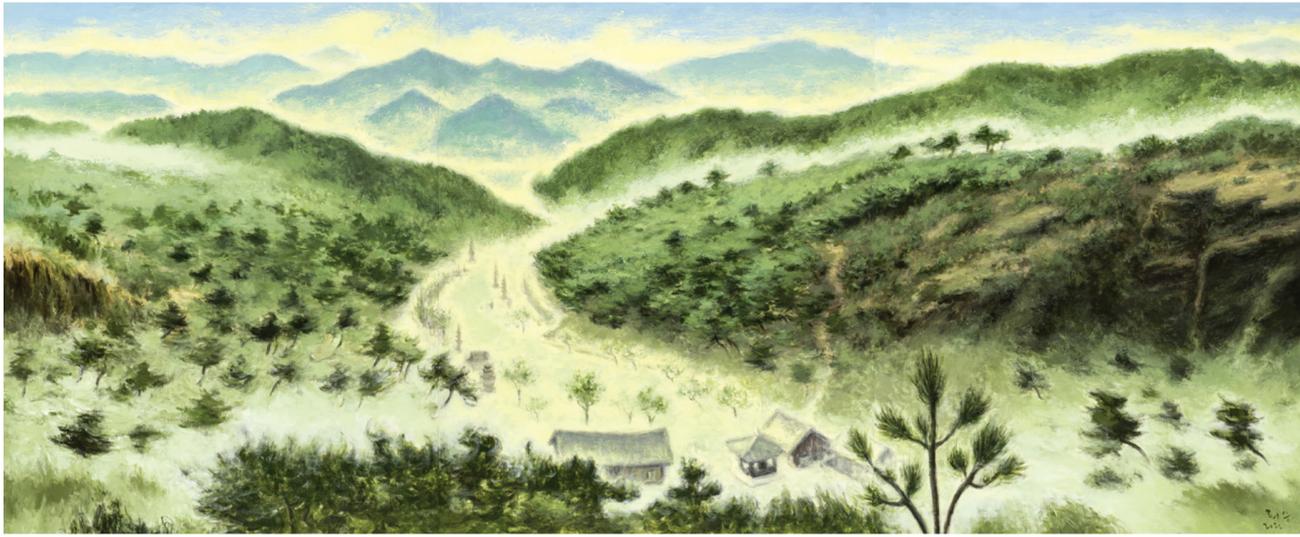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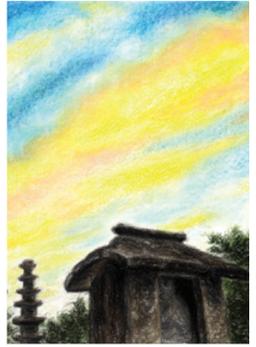


정희승 개인전
운주로 가는 길



‘운주, 구름배’

26일~3월 4일 동구 무등갤러리
‘미륵바다’·‘미륵연작’ 등 모티브



진광불휘(眞光不輝)

긴 시간 켜켜이 쌓아... ‘참된 것은 번쩍거리지 않는다’

“참된 것은 번쩍거리지 않는다”는 ‘진광불휘(眞光不輝)’가 이번 전시의 주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희승 작가는 조용한 사람이다. 밖을 지향하기보다 내면을 바라본다. 타고난 천품이 별 말이 없다. 묵묵히 작업에 정진할 뿐이다.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일시적 흥분보다는 긴 시간 켜켜이 쌓아 올리는 열념(熱念)과 정성의 과정”에 힘을 쏟는다. 아마도 정 작가는 창작에 독이 되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을 가장 경계하는 것 같다.

자기 피할 시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야 인정받는 시대에 그는 ‘드러냄’에 하등의 관심이 없다. 예술가는 예술로써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고전적인 방식을 고수한다.

정 작가가 5년 만에 개인전을 연다. ‘운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무등갤러리에서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작품전을 갖는다.

전시를 앞두고 정 작가와 통화를 했다. “석조불감을 답사하며 그것의 조형적 형태와 비율이 자유롭고 고졸한 느낌이 들었다”는 말에서 ‘참된 것은 번쩍거리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대략 가늠이 됐다.

“석조불감 안의 부처도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절대적인 엄격한 비례미가 아닌 편안한 내면의 미를 느낄 수 있었죠.”

정 작가는 지난 2021년 ‘나는 나다’전 이후 조금씩 창작의 영역을 확장해보는 시도를 해왔다. 서민들이나 민중들의 삶을 작업했던 것은 그런 연장선일 것이다. “운주사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2022년부터 집중적으로 했다”며 “운석열 정권 시기와 겹치는 기간이라 답답한 시간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무도한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주사에 깃든 민초들의 염원을 창작의 모티브로 가져왔다는 얘기다. 정 형에서 벗어나 자연의 미를 밝히는 운주사의 불상과 탑들,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석불들은 시대를 초월해 미륵정토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수렴된다.

정 작가는 “알려진 대로 운주사는 미완의 불사. 그것이 광주의 5월 민중항쟁과 연결된다”며 “몸뚱이를 잃은 채 날브러진 불두(석불 두상)에서 오월의 상흔이 겹쳐 보였다고 담담하게 전했다. 그러면서 “그늘진 곳에 널브러져 있는 불두는 ‘이름도 남김없이’ 죽어간 민초들의 상흔을 떠올리게 했다”며 “제 작업 속 불두는 오늘의 역사를 일궈 온 민중들과 오월 희생자들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채화 연작 12점, 유화 연작 13점을 볼 수 있다. 주요 주제는 ‘미륵바다’, ‘미륵연작’, ‘진광불휘(眞光不輝) 연작’, ‘운주사 풍경’ 등 모두 4가지로 압축된다.

푸른 바다에 누워 있는 ‘미륵바다’는 고해나 해원의 바다로 다가온다. “직접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가슴 아팠던 사건을 다뤘다”면서도 “물을 배경으로 하기에 신화적, 설화적 관점에서 재생이나, 민중의 염원, 개벽 사상과 같은 뜻을 함의한다”고 정 작가는 언급했다.

조인호 대표는 “거친 세상을 덮고 산등성이까지 차오른 새로운 기운이 물결치며 밀려들어 와불을 띄우는 ‘미륵바다’는 이고득락(離苦得樂) 세상의 대변혁을 희망하는 정희승의 묵인 웅변이다”고 평했다.

운주골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구현한 그림도 있다. ‘운주, 구름배’, ‘운주의 기억’ 등은 그림을 매개로 운주의 미학과 감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손에 잡힐 듯 아련히 펼쳐진 운주골은 눈에 보이는 외형을 넘어 작가의 내면에 침윤된 이상적인 풍경으로 읽힌다.

정 작가는 “운주사는 너무나 유명한 사찰로 지금까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며 “제가 작품을 통해 해석한 면들이 관객들에게 의미있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출신인 정 작가는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민미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월전 ‘희망의 근거’, ‘화가의 지갑전’ 등을 기획했으며 ‘도원으로 가는 길을 묻다’ 등 다수의 개인전, ‘시간의 흔적 예술의 울림’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륵바다’

‘21세기 한국 철학을 찾아서’

27일 비움박물관 인문학 산책... 조성환 교수 강연



비움박물관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고유한 문화가 응결된 곳이다. 광주 유일의 사립 박물관으로 다양한 생활 문화, 예술문화 등이 투영된 공예품, 도구, 장신구 등을 소장하고 있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비움박물관이 ‘인문학 강연 산책’ 시리즈로 한국 문화의 원형과 뿌리를 찾고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월 강연(27일 오후 7시)은 조성환(사진) 원광대 철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21세기 한국 철학을 찾아서’를 주제로 조 교수는 오늘날 한국 철학의 의미를 비롯해 K문화의 사상과 근원, 우리 문화에 내재하는 깊은 사상적 배경 등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조 교수는 기후인문학연구소 소장, ‘사상계’ 편집주관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의 철학자들’, ‘키워드로 읽는 한국철학’ 등을 펴냈다.

이영화 관장은 “이번 인문학 강연 시리즈는 우리 문화의 기저에 드리워진 고유의 철학적 배경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우리 것에 대한, 특히 우리 전통과 사상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진옥섭 담양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강연을 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감각의 한국화

‘전통과 형상회’ 혜존 전...27일~3월 29일 광주예술의전당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 할 때 받는 이의 이름 뒤에 흔히 ‘혜존(惠存)’이라고 쓴다. 보내는 이의 정중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정성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담긴다.

‘혜존’을 주제로 내건 전시가 열린다. 전남대 미술학과 한국화 동문 ‘전통과 형상회’(회장 이선복)가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전시를 펼친다.

언급한 대로 전시 주제는 ‘혜존(惠存)’. 사전적 의미는 ‘받아 간직해 달라’는 이편의 마음을 예스레게 표현한 것이다.

전통화 형상회는 모두 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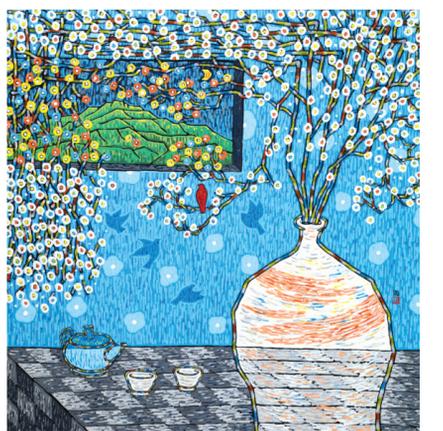
작가들은 저마다 개성적인 조형 언어로 전통과 형상이 교섭하는 지점을 탐색하며 고유의 관점으로 일상과 자연의 형상을 구현했다. 새로운 감각으로 구현된 한국화는 모던한 감성을 일깨운다. 주제와 암시하듯 전시는 한국화를

매개로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변화를 폭넓게 아우른다는 의미를 내재한다.

이두환의 ‘blue room’은 화창한 봄 기운을 발한다. 파란색 배경의 화면에 알록달록한 꽃들과 붉은 새가 담긴 작품을 보고 싶다면 어디선가 봄의 노래가 들려올 것 같다. 초록의 산과 들만을 담은 사각의 액자는 푸른 기운이 넘쳐나고 이름 모를 새들의 날갯짓을 담은 벽지는 그 자체로 힐링을 선사한다.

조문현의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은 우리 사는 세상의 다정한 풍경을 품고 있다. 백자와 마을, 해, 산 풍경은 모든 것이 어우러져 생명성을 구현한다. 둥근 달처럼 너그럽고 포만감이 느껴지는 달항아리는 파스칼과 공동체의 정서를 환기한다.

한편 이선복 회장은 “오는 3월 5일이면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다. 때서운 추위를 뚫고 꽃이 피어나듯 어김없이 봄은 우리들 곁에 찾아왔다”며 “전통과 형상회가 마련



이두환 작 'blue room'

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변화와 역동의 흔적들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콘진원, AI 콘텐츠 제작 지원에 198억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인 총 19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I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고,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도화된 AI 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제작에도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원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법률·저작권·사업화 상담과 전문가 연계,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해 AI 콘텐츠 제작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AI 콘텐츠 페스티벌’을 열어 제작 지원 성과를 산업계와 국민에게 알린다.

/연합뉴스

동화에서 깨어난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3월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동화 속 공주가 무대 위에서 몸짓으로 다시 깨어난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차이콥스키의 선율 위에 클래식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동화 형식으로 풀어내며 관객과 만난다.

광주시립발레단은 3월 27일 오후 7시 30분과 28일 오후 3시·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기획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발레살롱콘서트 #1’ 몸으로 펼치는 동화발레의 첫 번째 무대다. 발레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작품을 처음 접하는 관객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작은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동화를 바탕으로 한 고전 발레다. 요정들의 축복 속에 태어난 오로라 공주는 마녀의 저주로 긴 잠에 빠지고, 시간이 흐른 뒤 왕자의 등장

으로 다시 눈을 뜬다. 선과 악의 대비, 사랑과 희망이라는 주제를 담은 작품으로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함께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무대는 춤에 나레이션과 영상 연출을 더한 형식으로 꾸며진다. 해설이 장면의 배경과 인물의 감정을 설명하며, 영상은 공간과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보완한다.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 이어지며 관객은 마치 동화를 읽듯 발레를 감상할 수 있다.

시립발레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관객 등 다양한 세대가 발레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전석 2만원(6세 이상 관람 가능),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켓링크 예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지난 공연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